



[라이프] 극장서 특별한 경험을 CGV 스크린X 2.0시대 연다 L2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드론 활용, 일자리 창출... 환경 변화 헤쳐나가는 세계도시

말레이시아 드론 기술 사용 확대 베이징 고령층 건강서비스 강화 델리 5년간 일자리 200만개 창출



시범운영 중인 유인 드론택시. /손진영 기자 son@

세계 주요 나라와 도시들이 4차산업 혁명, 고령 인구 증가, 코로나발 경기 침체와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드론 활용 확대, 양로 서비스 강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올해 드론 등 로봇공학 기술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드론 산업과 기술'을 교과 과정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제안 내 최대 드론 시장인 말레이시아는 재난 현장과 코로나19 대응, 스마트농업에 드론을 투입해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드론을 통해 수해 현장을 확인하고 이재민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했으며, 보건부는 드론으로 야외 공공시설에 소독제를 분사해 방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 수도권에 있는 슬랑고르주 과일 농가는 농업용 드론을 지원받아 생산성과 수익을 20% 증대시켰다.

말레이시아의 팜오일(야자유) 농가는 코로나 사태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는데 드론 스타트업인 플라드론이 재배지 모니터링, 품종 구별 등의 기능을 갖춘 팜오일 전용 드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 일손 부족 어려움을 덜었다.

홍성아 통신원은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드론 산업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국인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베이징시는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맞서기 위해 건강·양로서비스를 강화했다. 베이징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6년 11.5%, 2017년 12%, 2018년 12.4%, 2019년 12.8%, 2020년 13.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베이징시는 고령층의 건강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년건강서비스지도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일정 규모의 시설과 의료진을 갖춘 50개 병원을 '노년건강위생서비스센터'로 지정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노년층의 중의학(중국 전통 의학)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고려해 336개 의료기관에 중의관을 마련, 노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모종혁 통신원은 "베이징시는 2020

년 말까지 544개의 양로원을 설립해 10만7000개의 침상을 확보했고, 한국의 요양원·요양원과 비슷한 '양로서비스 역참'도 1005개까지 증설했다"며 "시는 평가원 642명, 감독원 246명, 심사원 106명을 두고 양로원과 양로서비스역참을 관리·감독하면서 해마다 등급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델리 NCT 정부는 코로나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올해 80억루피를 포함해 5년간 총 450억루피를 투입,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델리 NCT 정부는 ▲도·소매 ▲식음료 ▲유통 ▲관광 ▲엔터테인먼트 ▲건설 ▲부동산 ▲신재생 에너지 총 8개 분야를 일자리 창출 주요 부문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우선 가상 시장 플랫폼인 델리시장 웹사이트를 개설해 지역 소매상의 상품 판매량을 확대, 약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역 주변 등에 주요 맛집 거리를 재개발하고, 배달 서비스 앱과 연계하

는 형태의 야간 푸드트럭을 도입해 일자리 4만개를 조성한다.

기존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10만개의 일자리를 발굴한다. 델리 쇼핑 페스티벌과 연계한 형태로 지역 내 5개 소매장을 주요 관광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10억루피를 투입,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

델리 NCT 정부는 사업별 고용 목표량을 설정한 후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성과관리를 실시해 진행 상황에 따라 고용창출 사업을 보완·점검할 방침이다.

박원빈 통신원은 "델리 NCT 정부는 5년간 2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의 주요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고용 창출로 연결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확대로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시-노바티스, 바이오 혁신기술 찾는다

창업기업 육성 '헬스엑스챌린지' 개최 2개 기업 선발, 연구비·멘토링 등 지원

서울시는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가진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한국노바티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제3회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의 주제는 '디지털 기반 시뮬레이션 및 가상 기술', '전자의무기록과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총 2개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10년 이하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디지털 기반 시뮬레이션 및 가상 기술 분야에서는 ▲의료영상·바이오생체 변환 지표 분석 ▲질병 진행 모델 분석 ▲생체신호 분석 등을 위한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발한다.

전자의무기록과 개인건강기록 플랫폼 분야에서는 ▲질병 인식 캠페인 ▲맞춤 의료 서비스 ▲환자 여정 분석 ▲조기 치료 관련 혁신 기술을 찾는다.

시는 본 대회를 통해 최종 2개 기업을 선발한다. 우승 기업에는 기술 개발 연구비(기업당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와 기술 상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이 제공된다. 선발 이후부터 2년간은 서울바이오허브 공용연구장비

사용, 투자유치 연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1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헬스엑스챌린지 서울'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 기업은 9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시는 바이오의료 분야의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을 통해 우리 기업이 노바티스 등 세계적인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넓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수도권매립지 서울시 폐기물 절반으로 '뚝'

올 1~4월 폐기물, 전년 대비 47% ↓

서울시는 올해 1~4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 관내 폐기물 양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에 묻힌 서울시 폐기물 양은 작년 1~4월 25만5780t에서 올해 1~4월 13만5824t으로 약 47% 감소했다.

이중 건설폐기물 매립량이 13만3768t에서 2만4064t으로 82% 급감했다. 시는 올 1월부터 5t 이상 대형건설폐기물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데 따

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생활폐기물' 매립량도 10만4935t에서 9만5934t으로 8.6% 쪼그라들었다.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24만7625t에서 23만9112t으로 3.4% 줄었다.

생활폐기물은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후 소각재를 매립하거나 직매립하는 식이다. 시는 다양한 정책 추진과 재활용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로 생활폐기물 매립량과 소각량이 모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청년 이야기 담은 '공감스토리' 공모

청년 이슈 공감대 형성, 발전 응원

고양시가 청년의 다양한 이야기를 찾기 위해 '청년 공감스토리' 공모전을 실시한다. 청년이라면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7월 31일까지 참가 신청·접수받는다.

고양시 청년공감스토리 공모전은 청

년의 성공과 실패, 꿈과 도전, 일상 속 이야기 등 이 시대 청년들의 공감 스토리를 발굴·공유하여 청년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년의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전국의 만 18세~만 39세 청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취·창업 성공담, 꿈

과 희망, 일과 사랑, 잊지 못할 경험 등이 시대 청년이 겪는 일상의 모든 이야기를 수필·사진 글·웹툰 3가지 중 하나의 형식으로 풀어내면 된다.

시는 공모제집을 통해 신청·접수 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할 계획이며, 입상자에게는 상장 및 상금(총 35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조하여 신청서와 작품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6월 13일 (월) 음력 : 5월 15일

수도권 날씨 20~3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0 | 해질 / 19:54

지역별 날씨: 연천 18/27, 동두천 18/28, 가평 17/26, 파주 17/27, 서울 20/30, 양평 18/28, 인천 19/28, 수원 20/29, 용인 20/29, 평택 18/2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백정현, 38억 FA 투수 1군 ERA 6.80 → 2군 ERA 9.53 '충격'
▲황선홍호, U-23 아시안컵 4강 가면 우즈베키스탄 만난다 /사진 뉴시스

▲9·11 유족들, '테러책임' 사우디 골프 대회 출전 미 선수에 항의
▲女 테니스 한나래-최지희, 2주 연속 국제 대회 정상



▲축구협회 "손흥민의 A매치 2경기 연속 프리킥 골 한국 최초"
▲'호날두 성폭행 의혹' 320억원 손해 배상소송 기각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